

양돈인의 멧



정 영 찬
(본회이사·대왕축산주식회사 사장)

양돈인의 참멋은 풍요로움에 있다고 생각된다.

살이 잘 찐 건강한 돼지를 보라!

그들에게 무슨 번뇌와 시기가 있겠으며 추함이 있겠는가? 둥글둥글, 둥글게 세상을 살아가는 듯한 그 놈들,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커가는 그 놈들을 대하다 보면 내 마음 또한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풍요로와짐을 느끼게 된다.

나는 더 큰 풍요로움을 맛보기 위해 돼지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가고 있다.

우리는 양돈인으로서 더 큰 풍요로움을 만끽하기 위해 몇 가지의 선행조건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옛날처럼 가가호호 한두 마리씩 기르던 방법에서 전문화·기업화가 되어가고, 우리 축산인도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축산인으로서 축산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겠다.

첫째 : 축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는 축산인이라는 자부심을 지녀야 한다.

농산물 수입개방, 소값 하락과 더불어 농촌경제의 위기적 상황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축산 발전의 시련이라 생각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여 축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한 만큼 그 멧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그 분위기를 가꾸고 수확하는 주인은 우리이기에 좀 더 하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고급 단백질을 국민에게 공급한다는 긍지로 축산부국을 키우기 위해 앞장서서 깃발을 높이 들 때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과 긍지와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불행할 수 없기에, 행복이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양돈경기는 양돈인의 힘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그러므로 항상 소박한 마음으로 양돈에 임하여 정성을 다하며 양돈산업이 국가경제와 국민건강 향상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면 우리의 직업도 한층 더 멋을 가져다 줄 것이다.

둘째: 양돈경기를 양돈인의 힘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겠다.

양돈경기를 예측할 수 없는 현 상태에서 먼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들의 이야기다.

양돈경기의 흐름에 따라 신규 양돈장과 도산하는 양돈장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풍토가 현 우리의 실태이다.

상호 연관성이 많은 축산물 시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증식보다는, 적정두수 및 가격의 조절유지를 통한 안정으로 우리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양돈인들이 지녀야 할 멋진 힘이 아니겠는가.

세째: 사양기술의 향상과 질병 예방대책을 철저히 하여야겠다.

근래에 우리의 사양기술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오늘의 사양방식에 만족하지 않고 돼지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고 돼지는 집단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만성적인 질병이 발생될 소지가 크므로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한 돼지를 생산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여야겠다.

네째: 환경 관리면에서 볼 때 우리 양돈은 더

럽고 지저분하다는 인식이 박혀 있음을 볼 수 있다.

소규모로 할 때는 분뇨처리가 별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으나 그 규모가 커가면서 심각한 공해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공해방지를 위해 환경투자도 비록 단기적으로는 비생산적이라고 할 정도로 한계효율이 낮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면에서 본다면 투자효율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더우기 고도산업 사회하에의 궁극적 목표가 복지국가에 있다면 환경투자는 우리의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양돈인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전제들이 멋진 양돈을 할 수 있는 조건이며 더 나아가 멋진 양돈인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의 개성과 취향에 맞게 삶을 엮어 가기 마련이다. 석수장이 꿩임없이 내리쬐는 정 소리에 모든 것을 파묻고 살아가고, 시골 농부는 가을의 풍성함에 지난 여름의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도공들은 평생을 흙을 빚으며 흙 속에 묻혀 살아간다.

양돈인 우리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돼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자신들의 넉넉한 마음을 표현하여 주는 것이며, 축산부국으로 발전하는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양돈인의 멋이 아니겠는가?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양돈인들의 힘찬 발돋움을 기대해 본다.